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내실 기해

고객이 원하는 요구 모두 수용

신 동 수
(주)대경케미칼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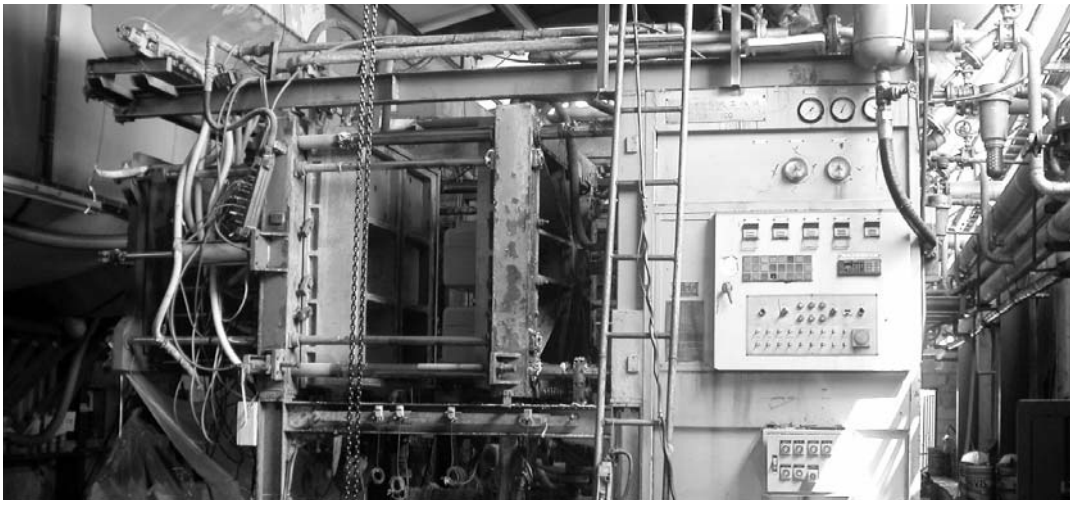
발포스티렌은 1950년대 초 독일에서 처음 생산된 이래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초소재이다.

주로 건축용 단열재, 가전제품의 완충재 위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수산물 어사장 및 농수산물 상자, 가전제품의 포장재, 주택단열재, 양식용 부자 등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발포스티렌은 보통 98%의 공기와 2%의 폴리스티렌 수지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절약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품포장용 용기로 사용될 때 특정 환경에서 스티렌 모노머 또는 다이머에서 유래되는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의심 받아왔다.

그러나 스티로폼은 산소와 수소 성분으로만 이뤄져 다이옥신이 발생될 수 없으며 발포 가스로는 오존층 파과와는 상관없는 일상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부탄과 펜탄이 이용되고 있다.

▲ (주)대경케미칼의 생산제품



▲ (주)대경케미칼의 생산설비

또한 완충성, 방수성, 위생성, 열차단성, 경량성, 성형성 등 포장의 기능성이 우수하여 농산물 저온유통시스템에 있어서도 신선도 유지 등에 최적의 소재임을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스티로폼 재활용률이 67.1%를 기록, 스티로폼 재생원료 및 제품 570억원 상당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스티로폼 재활용 산업이 경제 성장과 수출산업 촉진에 일조하고 있어 그야말로 EPS는 친환경적 패키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스티로폼이 포장 생활 필수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EPS 제조업계의 작업 환경은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포장재로서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에게 1회용일 뿐이라는 인식으로 관리가 소홀한 것도 애로사항.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은 모두 수용,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스티로폼 전문 제조업체가 있다.

(주)대경케미칼(대표이사 신동수)은 1988년 설립 이래 스티로폼 포장재 완충박스, 농수산물, 아이스, 김치, 갈비박스, 의약품 박스 등을 생산하며 최첨단 회로설비 시스템, 철저한 품질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경케미칼을 이끌고 있는 신동수 사장은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꾀하기 위해 아무리 작은 거래 규모라도 최선을 다하여 납품하는 원칙으로 18여년동안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대경케미칼은 앞선 기술개발과 노하우를 통해 고품질과 원가경쟁력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객이면 영원한 고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며 고객만족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AEKYUNG

특히 대경케미칼은 고객이 원한다면 규격, 모양이 아무리 다양해도 금형을 새로 제작해 공급할 정도로 고객들에게 성실성을 인정받고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대경케미칼의 주 고객으로는 대림통상, 동원F&B, 두산, 대한통운, 현대 등이 있으며 이밖에 대경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소규모의 업체들에게도 납품하고 있다.

대경케미칼의 18여명의 직원들은 품질을 우선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등 다양한 용도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료, 발포, 숙성, 성형, 건조, 재단, 검사, 출하 등 복잡한 공정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스티로폼은 가공을 위해 스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여름의 경우 사우나가 따로 없을 정도로 작업시 애로사항이 있다. 이처럼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스티로폼 제조업체는 3D 업종으로 구분되어 이직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대경케미칼의 직원들은 대부분 설립 당시 함께 해온 가족들로 애사심 또한 남다르다.

▲ (주)대경케미칼의 다양한 금형들

유만승 공장장은 "신동수 사장님이 워낙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항상 아낌없이 베풀기 때문에 대경의 직원들은 회사 일이라면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티로폼 제조업체들이 경기침체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봉착한 것처럼 대경케미칼 역시 스티로폼 판매의 감소,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한 경영상의 고충을 겪고 있지만 신동수 사장과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고 있다.

유만승 공장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이다 보니 납기일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하루 이내에 배달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대경케미칼의 실외 냉각기

대경케미칼은 KS규격을 준수하여 자재, 공정,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품질보증제도를 확립, 소비자보호와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정별 검사규정을 강화하여 고품질 제품만을 납품하여 고객만족을 꾀하고 있다.

유만승 공장장은 "스티로폼 포장재는 경질 독립 기포 구조이므로 충격 흡수성이 양호하여 가벼운 제품에서 무거운 제품까지 완벽한 완충 성능을 발휘하며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 정밀 전자 부품 등의 포장에도 적합하다"며 "자유로운 형상의 성형이 가능하고 성형품의 외관이 미려하여 상품성을 높여주고, 무게가 가벼워서 이송 및 운반이 용이하여 많은 양을 손쉽게 적재할 뿐 아니라 단열효과도 뛰어나 포장재로서는 단연 돋보이는 소재"라고 강조했다.

이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로폼은 제작 단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유 공장장은 "스티로폼을 단순히 포장재로만 여겨 관리가 소홀하고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많이 안타깝다"며 "복잡한 공정과정을 거쳐 생산하고 있는 스티로폼은 설비투자도 비싼 편이지만 스티로폼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기본마진폭 하에 품질경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반적인 EPS 제조업체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정부의 지원없이 겨우 살아남을 정도로만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유 공장장은 "하루빨리 하청업체들에게 효율적인 혜택이 마련되어 불필요한 자금이 들지 않게 정부는 나라의 기반인 제조업체에게 경쟁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욕심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고객에게 다가갈 것이라는 대경케미칼.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하고 있는 대경케미칼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ko

이한얼 기자